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만남

우주에서 바라본 홋카이도와 그 주변

홋카이도의 남쪽으로는 혼슈,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에 이르는 섬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할린이 길게 뻗어 있으며 사할린을 지나면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쿠릴 열도를 지나면 캄차카 반도가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이러한 각 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먼 옛날부터 수많은 생물과 사람, 물건이

왕래하는 교차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부 지역부터는 매머드 코끼리가, 남부 지역부터는 나우만 코끼리가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홋카이도 위에 서보시고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나우만 코끼리

나우만 코끼리는 약 65만 년 전부터 수만 년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서식한 코끼리입니다. 적어도 12만 년 전에 혼슈로부터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1969(쇼와 44) 년에 도카치 지방의 주루이무라 (현재의 마쿠베쓰초)에서 발견된 나우만 코끼리는 그 이듬해에 걸쳐 전국으로부터 모인 연구자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거의 1마리에 해당하는 머리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마우만 코끼리는 늙은 수컷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전신 골격은 바로 이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전신골격으로 전시된 화석은 실물입니다.



매머드 코끼리

매머드 코끼리는 약 4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유럽이나 시베리아, 북아메리카 등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코끼리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얼음에 잠겨진 시체(미라)에 의해서 몸이 긴 털로 감싸지고 있고 작은 귀를 가진 모습 등 한랭 기후에 적합한 신체조건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매머드 코끼리는 수만 년 전의 지구가 특히 추웠던 시기에 사할린을 통해 대륙으로부터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크게 구부러진 거대한 송곳니는 눈을 파헤치고 먹이를 찾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어떤 곳일까요?

정면의 4개의 스크린에서는 홋카이도의 지리적인 특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홋카이도는 “북부지역, 북쪽 나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런던이나 파리 등의 유럽 도시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바다가 유빙으로 덮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동물은 혼슈보다도 유라시아 대륙과 공통된 특징을 보이며 아한대의 침엽수와 온대의 활엽수가 한 곳에서 우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먼 옛날부터 “북동 아시아의 십자로(교차로)”역할을 해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종합 전시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